

인간의 누드 시대를 읽다.

글. 정유선 뉴미디어 아티스트/서울여대 초빙강의 교수



<원반 던지는 사람> 미론, 기원전 460년~450년 / 출처 : 브리티쉬 뮤지엄 공식 홈페이지

고전에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인간에게 있어서 최대 미적 관심의 대상은 인간이었다. 인간에게 인간 자체는 훌륭한 예술의 대상으로 흥미로운 주제이며 가장 아름다운 조형적 가치를 갖는 대상으로 생각되어 왔다. 이러한 인간, 자신에 대한 관심은 예술에 있어서 누드라는 형식을 탄생시켰다. 예술에 있어서 누드의 형식과 의미는 시대를 통과하며 끊임없이 변화하게 되었고 시대의 미의식을 반영하는 수단이 되었다. 인간의 신체, 누드 그 미의식의 변화 과정을 한번 되짚어 올라가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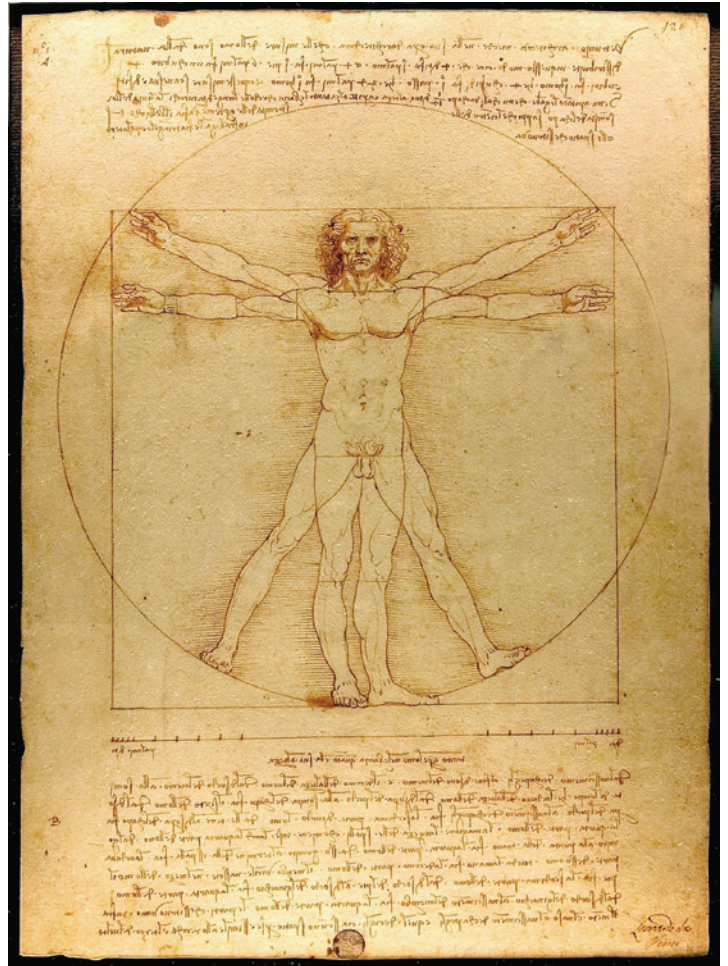
기원전 5세기 그리스 시대에 조각은 사실 그대로의 인체가 아닌 정확한 균형과 비례로 자신들의 이상주의적 아름다움을 추구하며 인간의 몸을 완전한 아름다움을 가진 완벽한 인체로 만들었다. 미론(Myron)은 기원전 480년부터 기원전 440년까지 활동한 고대 그리스의 작가로, 당대 최고의 조각가로 이름이 나 있었다. <원반 던지는 사람>은 손에 원반을 잡고 던지기 위해 몸을 회전할 준비를 하면서, 팔을 뒤로 빼고 체중을 오른발에 싣고 있는 자세의 운동선수를 소재로 했다. 미론은 선수가 순간적으로 정지한 상태를 포착하였는데, 이와 같은 우아한 조화와 균형이 나타나는 행동의 순간을 ‘리스모스(rhythmos)’라 일컬었다. 미론은 이 리스모스의 상태를 재현한 최초의 작가로 평가받는다.

원반 던지는 사람이 몸을 비틀고 있는 이유는 해부학적으로 완벽한 모습의 인물과 운동감을 묘사하고 싶어 했던 당대 조각가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운동선수의 누드는 울퉁불퉁한 근육을 상세히 묘사할 기회를 제공했다. 미론은 원반을 던지는 순간을 몸의 긴장된 힘과 섬세한 균형으로 전달하였다. 이

렇게 그리스 미술은 인간만이 자연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믿으며 인체의 이상적인 모습을 표현했다. 거기에는 신과 인간의 동일시를 희망하던 그리스인들의 염원이 담겨 있으며 완전한 아름다움을 가진 인간의 누드는 순수한 영혼을 상징하는 메타포(Metaphor)로서도 작용하였다.

인간의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사고나 순수한 예술 활동이 자제되었던 예술의 암흑기라고도 불리는 중세 시대의 미술은 기독교 미술이었다. 11세기경에 지어진 영국 웨스트 서식스, 하렘에 있는 세인트 보톨프(St Botolph) 교회에는 아담이 이브의 유혹으로 선악과를 따먹기 전 상황이 그려져 있다. 아담과 이브의 누드는 자세히 그려지기보다는 간단히 표현되었으며 아름답다기보다는 추한 쪽에 가깝다. 기독교적 내용에 따라 인간의 누드는 선악과를 따먹고 원죄를 지은 후 자신의 발가벗은 것에 수치심을 느끼고 무화과 잎으로 자신의 누드를 가린다. 중세 시대 인간의 누드는 죄를 상징했다.

하지만 르네상스 시대에 와서 다시 고전이 부활하게 되고 인간의 누드는 찬란하게 부활한다. 르네상스의 인간 중심주의를 반영하였으며 인간의 몸은 만물의 척도가 된다. 르네상스 시대의 최고의 예술가 레오나르도 다



<비트루비안 맨> 레오나르도 다빈치, 1490년, / 사진 출처: 위키피디아



<아담과 이브-유혹> 작자 미상, 세인트 보톨프 교회 벽화 / 사진 출처: 위키피디아

빈치 (Leonardo da Vinci)가 그린 <비트루비안 맨> 드로잉은 이러한 것을 여실히 반영한다. 비트루비안 맨은 로마의 유명한 건축가 비트루비우스(Marcus Vitruvius Pollio, 80-70 B.C. 경 ~ 15 B.C. 이후)의 저서를 접하고 다빈치가 이를 드로잉으로 그려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피렌체의 메디치궁전에 자주 드나들었던 그는 그곳 서고에서 비트루비우스의 책을 접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인체는 비례의 모범이다. 사람이 팔과 다리를 뻗으면 완벽한 기하학적 형태인 정사각형과 원에 딱 들어맞기 때문이다.”라고 서술한 비트루비우스의 글을 따라 다빈치는 두 팔과 다리를 벌리고 선 남성의 인체를 원과 정사각형의 선으로 둘러 그 안에 인체가 완벽히 합치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는 인체 속에는 완벽한 질서가 숨겨져 있기에 전체 질서의 축소판이 바로 인체라고 믿었다. 따라서 소우주인 인간의 신체는 우주 만물을 재는 척도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으며, 기본적인 측정단위로



<그랜드 오달리스크> 장오귀스트도미니크 앵그르, 1814년 / 사진 출처: 위키피디아

손가락, 손바닥, 발, 팔꿈치의 길이 등으로 실제 건축의 측정 단위로도 설정하기도 했다.

종교적·사회적 이유로 그 이전까지 남성의 누드가 예술의 주된 관심의 대상이었다면 17세기 이후 여성 누드가 남성 누드보다 한결 매력적인 주제로 간주하기에 이르렀다. 이것은 인체에 대한 관심이 남성에서 여성으로 옮겨갔다는 것과 인체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방식이 달라졌음을 의미했다. 다시 말해서 근육과 신체의 균형이 강조된 남성미에서 부드러움과 우아한 곡선이 강조된 여성미로 관심이 옮겨갔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관심은 육체가 주는 아름다운 관능미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고 절제와 비례와 균형을 강조했던 그 이전의 전통 속에서도 누드는 관능미를 표현하는 흐름으로 이어졌으며, 이것은 여성이 누드화의 중심에 서는 계기가 되었다. 앵그르(Jean-Auguste Dominique Ingres)의 <오달리스크>는 오리엔트의 후궁의 관능미를 극대화해 그려내었다.

20세기 현대에 들어와서 누드는 문화와 사회 속에서 특정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도구로 인간의 내적, 정신적 세계를 반영하는 표현수단으로 쓰이게 된다. 현대미술 속 누드의 상징성은 아름다움이나 관능적 아름다움의 표현에 머물지 않았다. 누드는 사회와 그 사회 속의 인간에 관심을 두고, 자본주의, 기계주의, 물질문명 등의 사회 속에 처한 인간의 모습을 나타내게 된다. 단순히 외면적인 형태의 재현이 아닌 인간 내면의 세계와 당시 사회적인 문제나 사건들을 통해 인간이 느끼게 되는 감정, 인간의 내면 심리를 과장하고 생략, 왜곡하는 등 다양하고



<걷는 사람 II> 알베르토 자코메티 1960년, / 사진 출처 : 시카고 아트 뮤지엄

새로운 형태의 인체형상으로 나타나게 된다. 단순히 인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사회, 인간과 인간, 인간과 문화 등 서로의 상호 관계 속에서의 인체의 형상이 표현되었다.

알베르토 자코메티 (Alberto Giacometti)는 이전의 조각에서 보여주던 통념을 벗어나 독자적인 인간상을 창조하였다. 그의 대표적 조각 작품인 <걷는 사람>은 육체라 할 수도 없을 정도로 마르고, 균형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인간상이다. 곧 부러질 것 같은 앙상한 모습에서 인간의 본질을 찾기 위해 인체의 특질이 되는 것들은 제거되었다. 이는 그가 겪은 2차 세계 대전에서의 파괴와 학살, 그리고 그 후의 삶에서 희망을 잃고 위기에 놓인 인간의 고통과 허무를 표현한 결과였다.

영국의 표현주의 화가, 프랜시스 베이컨 (Francis



<삼면화- 인간의 신체 연구> 프랜시스 베이컨, 1970년 / 사진 출처 : 프랜시스 베이컨 홈페이지

Bacon)은 종교화에서 주로 사용하는 삼면화 형식에 고립된 인물 형상을 그로테스크하게 담아 인간의 폭력성과 존재적 불안감을 표현하였다. 인간의 신체는 메스꺼운

느낌의 고깃덩어리로 전락하였고 인체를 이상화시킨 아름다움이나 관능미를 드러내던 묘사의 정 반대 지점에서 인간의 형태는 파괴되고 비틀리고 왜곡된 묘사가 드러나게 된다. 그는 20세기 유럽회화의 역사에서 가장 강렬하고 불안하며 논란을 일으키는 예술가 중 하나이다.



<벌거벗은 남자, 뒷모습> 1991-92 루시앙 프로이드 / 사진 출처 :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루시앙 프로이드(Lucian Freud)의 누드화 모델은 대부분이 그가 잘 아는 사람들을 선택해서 대상을 전혀 이상화시키지 않았다. 그림의 표현 방식은 사실주의적이었지만 온갖 꾸며진 요소들을 제거해 버렸다. 이것은 인물의 선택에서부터 상징적 의미를 지니며, 인물들의 표정 자체가 물질문명 속에서 삶의 생명력과 정신이 고갈된 단순한 물질 덩어리로서의 인간을 상징한다.

이렇게 인간의 몸은 예술작품의 소재로 끊임없이 등장한다. 그 이유는 바로 인간의 몸이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꾸준한 연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과거 인간의 누드가 종교나 신화적 이야기를 통해 인간 신체의 아름다움을 이상화하는 방식이었다면, 현대에 와서는 인간 내면세계의 표출, 사회 속에 놓인 인간의 표현 혹은 무미건조한 인간 삶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이것은 인간의 신체, 누드가 사회 현상이나 가치의 변화에 의해 끊임없이 영향을 받으면서 변화하고 재구성되고 있음을 증명한다. 